

# 중국의 항공박물관



<박물관 정문>

북경까지 여행하는 도중 여기까지 온 길에 중국항공박물관을 견학할 기회를 얻어 안내책자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서 그 개요를 적어 보고자 한다. 북경의 가을날씨는 좋다. 이른 아침에 숙소를 출발하여 박물관으로 향했다.

아침 일찍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때문인지 도로는 팔달령 관리장성으로 가는 버스와 일반 승용차로 상당히 붐비고 있었다. 간선도로에서 박물관가는 길길로 들어서니 차량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 박물관은 현지교통의 운전기사도 통역겸 안내원도 이번이 초행길이라고 한다. 행인들에게 길을 물어 가면서 가고 있다. 차창에서 본 경치는 전부가 농장으로 박물관에 이르는 직선도로에서는 농민들이 수확한 옥수수밭 아스팔트길 양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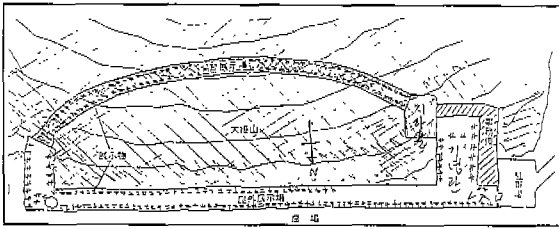
널어 말리고 있었다. 그 사이를 누비고 한참을 달려갔다. 이 길은 전에 항공기용 활주로의 일부로 보였다. 중국항공박물관은 정확하게 말하면 북경교의 창평현 대탕산 아래 위치해 북경시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이 소요되는 곳에 있다.

안내서에 적힌 박물관 건설의 취지, 목적에 의하면 실물항공기 보존 창고의 건설, 항공관계 사실의 보존과 재현, 항공지식의 보급, 국방의식의 강화, 항공기의 안전성, 유용성의 향상, 민족정신의 고취, 국제교류의 촉진, 과학기술발전의 촉진을 도모하여, 항공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강대한 중국인민 공군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라고 쓰여져 있다. 박물관의 건설도 국가건설의 초점과 합치하도록 되어있다. 연혁은 이런 취지에 따라 중국 인민 공군은 1986년 10월에 박물관의 건설을 결정하고, 건설계획본부를 설치했다.

그 후 곧 미, 영, 불등 선진각국의 항공우주박물관에 관한 자료조사와 수집에 이어 미, 불, 소, 독의 항공우주박물관의 현지 시찰을 하는 한편,

항공기, 무기등의 수집을 시작했다. 다음 해까지의 1년간에 항공기만 103기를 수집했다고 한다. 1989년 11월 11일, 인민공군 탄생 40주년에 즈음하여, 박물관을 대외적으로 정식 개관하여 일반에게 공개했다. 당시 수장품은 항공기 100종 이상으로 200여기, 여기에 지대공 미사일, 고사포, 방공 레이더, 폭탄, 항공사진기 등을 더하여, 전부 600여점 이상이 소장, 전시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이르기까지에는, 강택민, 양상곤, 이봉 등의 지도자가 현지를 시찰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일의 추진을 다그치고 하여 그야말로 국가적 사업으로 건설되었다고 한다. 정문을 들어서면 폭 30m 정도의 주기장이 일직선으로 아득히 멀리까지 뻗어나가 있고, 양측에 항공기 실물 기체가 쭉 늘어세워 전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 야외 직선전시장 양끝이 오른쪽 방향으로 꺾여져 ㄷ자형의 야외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처음에는 ㄷ자의 양단에 음밀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양끝은 각각 대탕산의 산 밑을 파서 뚫은 동굴과 연결되어 있다. 입구를 발견하여 안으로 들어가면 산을 뚫은 동굴 양끝이 직선전시장



박물관 전체 약도

과 연결되어 있고 동굴내부가 또 하나의 전시장이 되어 있었다.

아마도 전쟁때의 방공을 위한 지하 격납고를 재정비한 것으로 보였다. 총면적 20,000㎡의 동굴전시장은 활모양으로 휘어져 있으며, 이벤트를 같은 입구부분과 출구부분을 제외하고 이곳도 통로의 양 사이드에 각종 항공기들이 빈틈없이 전시되어 있다. 동굴안의 전시물은 안내문에 내력이 쓰여져 있는 비행기외에 헬리콥터, 글라이더, 미사일, 고사포등 항공기와 관련한 여러가지가 질서정연하게 진열, 전시되고 있다. 전시된 모양을 볼때, 아마도 옥외보다는 이곳이 상위 전시물같다.

그리고 옥외 전시장의 입구부분과 동굴 입구사이의 굽어진 부분이 메인 프레스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박물관의 기념물등이 설치 되어있다. 주위에 미국의 B-29, 소련의 TU-4 폭격기등 비교적 대형 항공기와 미사일 등이 전시되어 있다. 또 동굴 입구의 홀에서는 중국 항공사상 저명한 항공기와 관련된 사건들외에 라이트 형제등 세계 항공사상의 유명인사, 유명한 항공기 등이 주로 사진 패널과 모형으로 소개되고 있다.

동굴과 옥외를 합하여 300-400기 정도의 실물항공기가 전시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를 소개해 보

국동란에서 북한을 지원하고 항미 활동에서 활약한 것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MIG-9 단좌쌍발 제트전투기, MIG 아음속 제트전투기(소련제) : 이것들도 한국동란에 투입된 것으로서 이 비행기에 탑승한 비행사들이 여러가지 무공을 세운바 있다고 되어 있다.

◆U-2B 고공정찰기의 잔해(미국제) : 국민당공군(대만)의 U-2기를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한 것이라며 파괴된 잔해를 모아 보여주고 있다.

◆초교-5, 초교-6(중국제) : 5형은 남창비행기제조공사가 소련의 YAK-18을 모방하여 개발한 중국 최초의 국산기다. 1954년 7월에 시험 비행에 성공하였으며, 남창과 엔진을 담당한 주주항공기 발동기창은 모택동주석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고 쓰여있다. 6형은 남창이 자력으로 개발한 것으로서 5형보다 성능이 우수하며, 중국 최초의 자력개발 국산기라고 소개되어 있다.

◆섬-5(중국산) : 심양비행기제조공사가 소련의 MIG-17을 모방하여 개발한 최초의 중국산 제트전투기다. 1956년의 국경절에 모택동주석이 천안문 성루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자력개발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감격에 차서 말했다고 쓰여있다. 이 5형을 성도비행기제조공사가 개조한 전투연습기(선교-5)도 전시되어 있다.

◆섬교-1(중국산 제트연습기) :

### 동굴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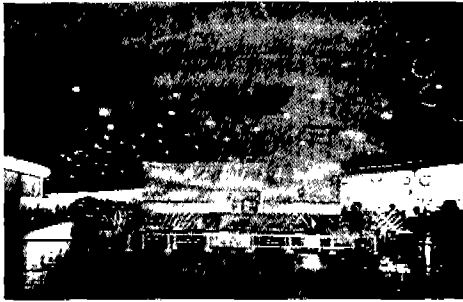
◆일본제 군용 항공기 : 기체앞에 영문과 한문으로 해설이 쓰여져 있었다.

① 99식 고등연습기 (일본제): 다찌가와 Ki-55, Type 99 1945년 침략자 일본으로부터 입수한 전리품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② 99식 경폭격기 (일본제): "Kawasaki Ki48 Type 99 Twin Engine Light Bomber"라고 쓰여져 있으며, 중국 북부지방 폭격에 사용되었다고 소개되고 있다. 보존상태는 양호하며 어떤 경위로 여기에 전시되게 되었는지는 쓰여있지 않다.

◆P-51 전투기, C-46 수송기, PT-19 초등연습기, L-5 연락기 (모두 미제) 모스키도 전투폭격기 (영국제) : 1949년 10월 1일의 충공 건국기념식전에서, 모택동주석등 정부요인이 주시하는 가운데 천안문 상공을 비행했다고 하는 진귀한 소장품이다.

◆Yak-12 연락기, Yak-18 초등연습기, Yak-11 중등연습기, Yak-17 제트연습기 : 1940년대의 소련제로서 1950년에 인민공군에 채택되었다. 한



〈동국전시장 입구의 흥〉

심양항공기제조공사가 처음으로 자력개발한 제트기이다. MIG의 장점을 도입하고 있으나 모방품은 아니다. 우수한 기체이기는 하나, 공군의 훈련체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제식 훈련기에 들어가지 못했다.

◆섬-6, 섬-7, 섬-8 (중국산 전투기) : 6형은 심양비행기제조공사가 소련의 MIG-19를 참고로 하여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다. 1964년부터 양산되었으며, 80년대 초기까지 공군과 해군의 주력 전투기로서 활약했다. 해상공중작전에서 미군과 대만의 정찰기(RF-101)등을 격추한 것도 이 전투기의 전과라고 소개하고 있다. 우호국에도 많이 공여된 기종이다. 7형은 심양이 MIG-21을 모방한 것이며 8형은 심양이 독자개발한 것이다. 이것을 다시 개량한 8형을 1986년의 영국 환보로 에어쇼에 출품하여 중국의 항공기술수준을 해외에 알렸다.

◆섬-12(중국산 전투기) : 중국(남창)이 MIG로부터 떠나 완전이 독자개발한 제트전투기로서 경, 단, 형의 세가지 점에서 성과를 올렸다

고 한다. 경은 자중이 불과 4.5톤으로 초음속기 중에서 세계최경량이다. 단은 이착륙거리가 불과 500m로 매우 짧다. 형은 상승성능, 선회성능, 조종성능 성능면에서 선-6을 능가하고 있다.

◆직-5, 직-6(중국산 헬리콥터) : 5형은 하얼빈 비행기제조공사가 소련의 Mi-4를 모방하여 제조한 국산 헬리콥터이며, 1971년의 9.13사건때 임표가 국외로 도피할 당시 사용한 것과 주은래가 1966년 3월의 지진이 발생하였을때 피해지구를 시찰위문할때 사용한 것등 두가지가 전시되어 있다. 6형은 동 공사가 개량한것으로 양산되지 않았다.

◆운-5 (중국산 소형수송기) : 소련의 AN-2를 모방하여 생산한 국산기이다. 원래 수송기이나 일부를 개조하여서 연습기, 농업용기, 인공강우기, 낙하산 강하기, 공중촬영기등 외에 군용으로 쓰여지고 있다. 전 시기는 주은래의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조국의 강산 곳곳에 뿌릴때 쓰인 진귀한 항공문물로서, 옆에 고 주은래수상의 사진이 걸리고 계절의 꽃이 놓여져 있었다.

◆운-11(중국산 소형다용도기) : 운-5의 개량발전형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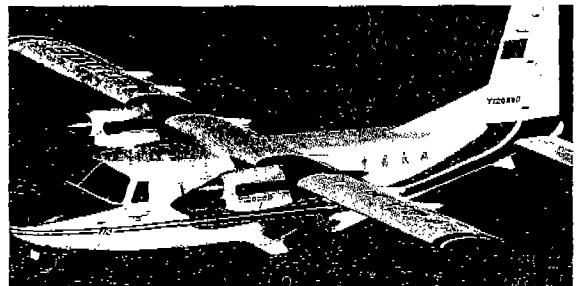
로 하얼빈 비행기제조공사가 생산한 소형다용도기이다. 농업, 임업에 농약살포에 사용하였으나, 지질조사등의 특수작업에도 전용되고 있다.

◆기타 : 미국제 세스너 172, T-33 A연습기, 소련제 탐-9, 탐-11전투 공격기 오탐-9연습기 II-10공격기, 캐나다제 U-6A수송기 등과 중국제 동풍 102전투기, 강-5공격기, 해방-5, 해방-9글라이더, 혁-2무인표적기, 핑-5 폭격기와 핑정-5, 핑교-5등이 전시되고 있다.

### 육의전시장

II-12근거리 수송기(소련제) : 1950년 12월부터 수입하였으며, 마차라는 별명으로 군용장비품의 수송등에서 활약했다. 전시기는 1964년 최초의 원폭 시험후, 버섯구름속을 뚫고 비행하여 자료수집에 성공한 것이라고 한다.

II-14수송기(소련제) : II-12의 개조형이며, 게이트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이는 4202호기는 모택동주석이 23회나 타고 다녔다는 정부 전용기로 쓰이던 것을 퇴역후 전시한 것이다.



〈주은래수상의 유골재를 강산에 뿌린 운-5 다용도기의 외모〉

◆An-24수송기(소련제) : 1963년 9월부터 수입한 중거리 쌍발수송기다. 이것을 개조한 시뮬레이터가 전시되고 있으며 만리장성, 명 13능, 박물관 상공을 비행 할 수가 있는데 이날은 쉬고 있었다.

◆C-47군용수송기(미국제) : 공중 열차로 불리며 제2차대전중 중국의 항일전쟁을 지원해준 수송기이다. 전시기는 1949년에 국민당의 중국항공공사와 중앙항공공사가 국민당을 이탈하여 중공측으로 날아온 것이라고 한다.

◆기타 : 소련제 Tu-124중거리 제트수송기, 리2수송기, 영국제 트라이덴트 제트여객기 등이 전시되고 있었다.

## 평가개요

전체를 다 보고난 평가감상으로는 어쨌든 중국에 이만한 항공박물관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또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박물관의 대부분이 동굴이라는데 다시한번 놀랐다. '이것은 중국항공계의 만리장성이다' 라고 절찬한 외국인이 있었다고 소개되고 있으나 실제로 보고나니 수궁이 간다. 훌륭하다는 것을 넘어 위용이 당당하다.

다음으로 소장기가 많다는 점이다. 수백대의 항공기가 전시되고 있다는 것은 가보기 전에는 예상도 못했다. 나라의 특성상 콜렉션을 한곳에 집중한다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었지만 이만한 수집, 소장은 그래

도 쉬운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번은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의문이 없지는 않다. 우선 기체의 보존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 특히 옥외의 기체는 엔진/파이런이 밑으로 빠져나온채 있는것, 기체의 일부가 결손된 것들도 있다.

다음으로 여러가지 항공기를 전시하고 있다는 것보다 수집한 것은 모두 버리지 않고 전부 늘어놓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전시장이 좁고 긴 도로모양이기 때문에 부득이한것 같으나 좀더 매력적인 디스플레이를 할 수도 있을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세계는 옥외의 전시물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설명이 전혀없다.

중국의 항공관계자는 알지 모르지만 문의한들이 봐서는 거의 모르겠다. 명문팸말과 설명판플렛정도는 꼭 갖추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끝으로 신국가의 건국과 발전 및 이를위한 투쟁과 선전에 사용된 항공기 즉 중국이라는 국가건설과 관련한 설화용의 전시 화이트가 크며 항공기의 사양이나 성능 또는 비행 본래의 성과등에서 볼때 의의있는 항공기의 수집전시를 했다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을 면치 못할것 같다.

그러나 처음 소개한 박물관 건설의 취지 목적을 되풀이 읽으면서 이것이 중국의 박물관이로구나 하고 납득하고 말았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해서 그런 항공관련의 전문성에 관한 견학보다는 중국에 이만한 항

공박물관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개관후 3년간의 방문객은 280만명이라고 기록되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1일평균 약 2,500명이 관람한 셈이다. 그런데 이날은 맑은 가을날이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대형버스 1대에 약 20명의 중국인 그룹과 마주친것 뿐이다. 추측하건대 최근에는 1일 100-200명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귀로에 자동차안에서 기념품으로 구입한 [항공항천박물관]이란 책을 펴 보았다. 세계의 항공발전사를 비롯 저명한 항공기, 우주기기등이 중국의 책으로는 드물게 칼라사진을 넣어서 소개되고 있다. 일본제로는 FS-X전투기와 PS-1대잠초계기 사진이 게재되어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에는 박물관이 많다. 주요도시에는 자연박물관, 혁명박물관등이 있지만 항공박물관은 귀하하다. 그 중 중국것은 규모면에서는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으나 좀더 견학, 관람자의 편에서 세심한 주의 같은것이 모자라는 것 같다. 미국이나 영국등 항공선진국은 기종에 따라 또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전시를 보여주고 있어 기왕이면 이런곳을 좀더 배우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서병홍)